

팔만대장경 '서울 나들이'

5월 9~29일 호암갤러리

'97 문화유산의 해

세계적 문화재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오는 5월 서울 나들이를 한다.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조림) 주최,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3주간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고려대장경판 전시회'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과 사간판과 함께 △패엽경(동국대 소장) △티벳장경판(동국대 소장) △조선시대 경판(봉은사 소장) △신라시대 석경판(화엄사 소장) 등 총 40여 경판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경판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해인사 판전에 대장경판이 이운(1398년)된 지 꼭 600주년이 되는 해가 1998년. 이번 전시회는 '97 문화유산의 해와 경판'은 600주년을 맞아 세계적 정보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영구히 보존 계승하려는 뜻으로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관람시켜 그 정신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전

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경판뿐 아니라 판전(국보 52호)의 과학적 신비까지 고스란히 공개된다. 통풍 방송 실내온도조절효과 등 대장경판이 700여년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신비의 핵심이 되는 판전의 구조를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판전 내부와 외부

패엽·석경·조선경판도... 판각·인경 재현 700년 보존 판전 과학적 신비 공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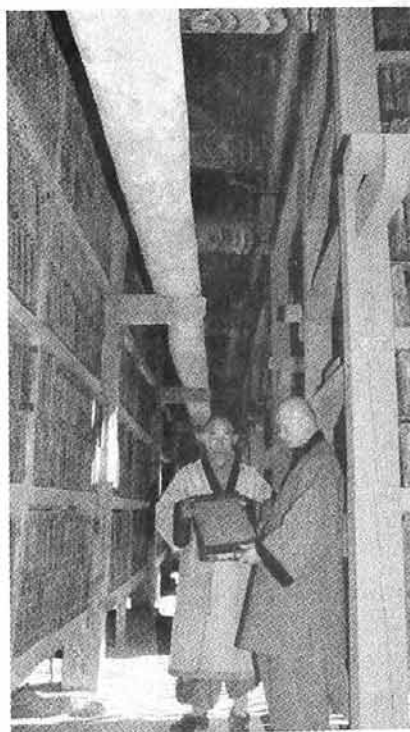
사진, 해인사 가람의 구조 등이 대형사진들과 종합모형물로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인쇄술 발달 이전의 필사본, 전각, 목판인쇄본, 최초 활자인쇄본과 최근의 컴퓨터전산화본 등 인쇄술의 발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며 산뜻나무, 오동나무 등 경판에 쓰여진 나무 10여종과 극세한 나무구조를 현미경으

로 관찰한 대형사진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사경과 판각, 인경, 그리고 컴퓨터전산화 등 대장경 경판 제조 전과정이 전시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수님은 "오는 2002년이면 법보장찰 해인사는 창사(創寺) 120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경판전시회는 법보장찰로서의 해인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해인사가 21세기 불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심 사찰로 이 시대 올바른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재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이경숙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와 해인사로의 경판이운 600주년을 기념하는 고려대장경판 전시회가 오는 5월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판전의 경판 모습.

불심시심 <76>

봄 와도 봄을 몰라

盡日忘機坐(진일망기좌) 기미마저 잊고 종일 앉아 있자니
春來不識春(춘래불식춘) 봄은 왔지만 봄인 줄도 모르네
鳥嫌僧入定(조협승입정) 새는 선정에 든 스님이 미워서
窓外喚山人(창외환산인) 창 밖에서 산사람을 불러대고 있네

지난 두 회에 걸쳐 환승스님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소박한 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시도 그저 담담하기만 한 시임을 즉각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스님들의 참모습일 것이다.

위 시는 '그윽한 울조림(幽吟)'이라 제한 시이다. 곧 조용히 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조용한 일상을 시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극히 일상적인 소재이다. 이 일상적인 소재를 글로 표현하려 하면 그것 이상으로 막연한 것도 없다. 표현의 남다른 것을 가지려면 소재 자체가 남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시인이 전문적 문학인보다 담담한 것은 바로 이 일상성을 삶의 진실로 보는, 일상사가 바로 선이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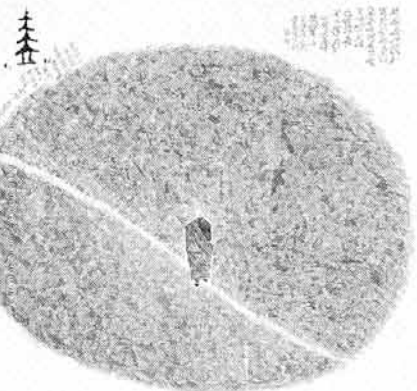
위의 시도 이 일상사가 바로 선이라는 담담함에서 우러난 것일 것이다. 첫 구에서의 기미를 잊고 앉아있다는 망기좌(忘機坐)에서 스님들의 일상사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망기라는 말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수양이나 수도의 경지를 나를 있다는 망

아나, 혹은 삶의 지표라 할 도를 잊는다는 망도(忘道)로 표현한다. 이는 아직까지도 잊음의 대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에 잊어도 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스님들이 말하는 이 망기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원초적 계기인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함이니, 그 격이 월등히 높은 한 수 위이다.

이 시는 이러한 망기가 전제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스님들에게 인간세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계절의 오고 감이 의심될 것이 없다. 사철의 계절 어느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없으리니, 겨울이라는 우울을 견디고 맞는 봄은 그래도 색다른 것이다. 그 봄을 모른다함은 계절도 의미없다는 상징이다.

새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다. 자연이 새를 시켜서 봄을 울리게 하는데 스님은 봄 자체를 모르니, 새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새의 울음은 이 계절을 모르는 상상을 부르는 것이다. 망기의 스님이 봄을 모른다 함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잊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새의 울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 것이다. 스님의 망기는 바로 자연을 가장 가까이 하려는 지기(知機)의 전제이다.

이충찬 <동국대 교수>



▷박종회 작 '진수', 수묵담채.

박종회씨 개인전 수묵화 '진수'

18일까지 공평아트센터

문인화에 오랫동안 정진해온 창현 박종회씨(52)가 오는 18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2층 전관에서 6번째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에 나온 150여 작품들은 석판을 이용한 문인화를 비롯 <대화> 등 동양고전에서 봄은 글귀를 문자로 디자인하거나 갈색 청색 글씨로 회화성을 살린 것, 신

라양가에서부터 한운은 이목사 등의 명시를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적 감각의 문인화를 위해 부단한 실험을 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전통문인의 주제와 정신을 살리면서 현대에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의 현대수묵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회씨는 오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또 한차례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달마도 233점 모아 화집으로

범주스님 '선묵달마'... 30년 그림수행 결산



30여년동안 달마도 등 선화를 주로 그려온 범주스님(달마선인장)이 그동안 그려온 달마 233점을 모아 화집 <선묵달마(禪墨達磨)>를 펴냈다. 강력한 감필(減筆)의 묵선으로 구사된 의습의 두드러진 표현과 간략한 현대적인 조형법으로 현대적 달마를 창출했다는 평을 들어온 범주스님은 이번 화집에서 '반신달마' '좌선달마' '행선달마' '절로도 강달마(折蘊渡工達磨)' 등 여러가지 모습의 달마를 모았다. 재미있고 다양한 모습의 달마를 볼 수 있는 이번 화집발간에 대해 범주스님은 "30년 그림수행의 중간결산을 해본 것"이라 말한다.

범주스님은 달마도의 시제(詩題)를 한글로 넣었다. 달마스님과 역대 조사들의 선어록을 알기쉽게 풀이한 것. "탐진처와 갈매이 갈수록 더 해가는 이 세상은 달마선 사상이

질실하게 요구됩니다. 달마 그림과 시제를 보며 사람들이 탐진처에서 벗어나 달마선사의 지혜와 자비를 느끼고 평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 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범주스님은 화집발간을 기념해 오는 6월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또 한차례의 달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속>



불교미술대전 출품작 공모 28일까지 접수

불교미술작가들의 최대 동용문인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이 오는 3월 개최를 앞두고 2월19일~2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예배용(전통·회화 조각 공예 건축)과 △감상용(순수·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으로 나뉘어 공모되는 이번 불미전의 원서교부는 오는 28일까지(02-739-1830). 출품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불자여야 하고 출품수는 1인 2점(출품료 1정당 3만원)이내로 국내의 미 발표작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아야 한다.

불미전의 최고상인 대상(종정상 1명)의 상금은 지난 대회보다 배가 오른 1천만원, 금상(총무원장상 각 1명)은 각 7백만원, 은상(우수상 각 2명)은 각 2백만원, 동상(장려상 각 4명)은 각 50만원, 특별상(문화체육부장관상 1명)은 상금 1백만원으로, 입상작 및 심사위원 발표는 오는 3월 5일이다. 불미전에서 입상된 작품들은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서울공평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한국의 전통춤' CD-롬 발간

작법무등 146종 수록... 유형별 특색 정리

봉인사작법무 등 전통춤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진 동화상 등이 한장의 CD-ROM에 수록됐다. 문화체육부가 최근 제작해 내놓은 CD-ROM '한국의 전통춤'에는 △종교 의식용 △민속춤 △교방춤 △궁중 정재춤 등 분야별로 종목별 춤의 설명문과 정치화상(355장) 동화상(36종) 용어사전(638개 단어) 등이

▷봉인사 작법무. 사진이 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들어 있다. 종교의식용에는 봉인사와 봉인사작법무, 각지역 국 등 19종목, 민속춤에는 각 지역 농악, 탈춤 등 62종목, 교방춤에는 이매량류 승무, 강선영류 태평무 등 12종목, 궁중 정재춤에는 처용무 학무 현선도 등 53종목 등 총 146종의 전통춤이 수록됐다. 이 CD는 우리나라 전통춤의 역사성과 유형별 특색을 학술적으로 정리

'96 한국번역상 고은시집 '조국의 별' 독어판

시인 고은씨(본지 논설고문)의 독어판 번역시집 <Die Sterne Über Dem Land Vater: 조국의 별>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연회장에서 한국번역가

협회(회장 류근주)가 공동 주최하는 '96 한국번역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집의 독일어 번역은 번역 문화가인 지그프리트 샤프슈미트씨와 채운정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長腦山蔘

보은의 선물 ·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분을 축진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세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蔘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홍천입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년根 수량제한 한정판대

홍천입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량 홍천 입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져다 부러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계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입업협동조합 검수품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마이산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관공과 방생을 한곳에서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